

임시완도 NEW도 이제는 '본전생각'

(영화 '오빠생각' 투자배급사)

손익분기점 넘기도 박한 '오빠생각'

개봉 2주째 관객 60만...300만은 역부족
잘 나가던 임시완, 연기 스타일 한계 봉착
NEW도 '대호' 이어 연속 흥행 부진 악재

이쯤 되면 '더블악재'다. 그룹 제국의아이들 출신의 연기자 임시완과 투자배급사 NEW가 흑한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21일 개봉한 '오빠생각'(감독 이한·제작 조이래빗)에 대한 관객 반응이 기대치를 훨씬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순제작비 70억원을 포함해 총 제작비 규모 약 100억원에 이르지만 26일까지 관객 60만명을 가까스로 넘겼을 뿐이다. 영화를 책임지는 주인공 임시완이 앞둔 상황은 '시계제로'다. 당장 28일 개봉하는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쿵푸팬더3'의 예매율(영화진흥위원회)이 치솟고 있다. 26일 오후 5시 현재 '오빠생각'(11.3%)을 네 배나 앞질렀다. 또 27일 이성민 주연의 '로봇 소리'가 개봉하면서 흥행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세 편을 통틀어 주인공의 티켓파워나 대중적인 인지도면에서 '최약체'로 평가받는 임시완은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화계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오빠생각'이

손익분기점인 300만 관객을 모으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개봉 직전 "흥행적인 수치로는 최고의 정점을 찍어봤기에 미련은 없다"고 했던 임시완의 말이 정작 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임시완이 아직 한 편의 영화를 온전히 이끄는 단독 주연을 맡기에는 실력과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변호인'부터 '미생' 그리고 이번 '오빠생각'까지 변화 없이 반복되는 정적인 연기 스타일 역시 관객이 자주 지적하는 부분이다.

경험이 부족한 임시완을 발탁해 100억원 규모 영화의 주연으로 파격 발탁한 투자배급사 NEW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총 제작비 170억원을 쏟아 부어 완성한 '대호'가 180만여 관객 동원에 그친 성적표를 받아들고 새해를 맞이했던 NEW는 '오빠생각'의 부진한 초반 성적에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나마 '대호'는 흥행 성과와 별개로 극의 완성도와 작품성이 두루 인정받았다. 하지만 '오빠생각'은 임시완 등 일부 출연진의 연기력 부재와 더불어 "오빠는 있고 생각은 없는 영화"라는 악평까지 시달리고 있다. 분위기를 반영하듯 NEW의 주가는 지난해 말부터 '오빠생각'이 개봉하고 나서도 줄곧 약세다. 이혜리 기자 g011024@donga.com



임시완의 첫 주연 영화 '오빠생각'이 예상과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흥행 성적을 거두면서 연기자로서 한계를 노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오빠생각'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조이래빗

연예뉴스 스테이션

KBS '무림학교' 4회 줄여 16회로 조기종영

KBS 2TV 월화드라마 '무림학교'가 결국 조기종영한다. 26일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KBS와 드라마제작사 제이에스피쳐스는 20회로 제작중이던 '무림학교'를 4회 줄여 16회로 종영하기로 했다. KBS는 11일 첫 방송된 '무림학교'의 저조한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작품에 대한 혹평을 이유로 제작사 측에 조기종영을 통보했다. 이에 제작사가 반발하며 23일부터 촬영을 중단했다. 꼭질 끝에 '무림학교'는 27일부터 촬영을 재개하지만, 조기종영에 따른 갑작스런 스토리 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카라 떠난 한승연, 엄지원·고준희와 한술밥



결그룹 카라를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 한승연(사진)이 천호진 배종옥 이상운 엄지원 고준희 등이 소속된 제이와이드컴퍼니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26일 "한승연과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9년간 가수과 배우로 좋은 활동을 보여준 한승연의 매력과 저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승연은 이날 SNS에 "새로운 회사와 함께 예쁜 기억, 추억, 경험들을 팬 여러분들과 만들어 가고자한다. 우리는 찢어진 적도, 돌아선 적도, 이별을 고한 적도 없다. 더 자주 여러분과 만나고 더 많은 분야에서 저 자신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고민한다"고 인사했다.

멜론, 개인화 추천 등 음악추천 서비스 개편

국내 음악사이트 중 유일하게 '음악추천'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멜론이 26일 새로워진 '음악추천' 서비스를 공개했다. 변화된 추천 서비스는 고객 개인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개인화 추천'을 제공한다. 새로워진 멜론 추천 서비스는 ▲고객의 선호 아티스트 ▲선호 아티스트와 유사 아티스트 ▲선호 장르 등을 기준으로 자동 선곡되고 추천 근거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추천범위는 10일 이내 발매된 곡들이며, 이는 누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가 동일한 곡을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월드투어 나선 투포케이, 폴란드 공연 성료

그룹 투포케이(24K·사진)가 올해 첫 월드투어에 나선 가운데 2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첫 공연을 펼쳤다. 이날 투포케이는 히트곡 '오늘 예쁘네' '날라리' 등을 비롯해 '빨리'와 '달려가' 등 총 14곡을 라이브로 선보였다. 공연 내내 팬들은 히트곡은 물론, 공식 활동을 하지 않은 수록곡까지 따라 부르는 등 뜨겁게 반응했다. 이날 팬들 가운데에는 중국, 그리스, 터키 등에서 날아온 팬들도 눈에 띄었다. 투포케이는 폴란드에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유럽과 멕시코 등 남미를 순회하며 해외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씨그널엔터, 中 화이자신 215억 투자 유치

이미엔 김현주 등이 소속된 씨그널엔터테인먼트 그룹(씨그널)이 25일 중국 오프라인 마케팅 전문기업 화이자신과 투자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화이자신은 씨그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만 주를 취득, 총 214억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씨그널의 최대주주가 됐다. 씨그널은 화이자신의 광고영업력을 통해 새로운 한류 콘텐츠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화이자신은 2010년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됐으며, 시가총액 2조 원에 근접한 중국 마케팅 전문기업이다.

음악 랭킹

1월 18일~1월 24일, 자료:멜론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Dream	수지, 백현
2	니가 하면 로맨스 (Ft. 다비치)	케이윌
3	걱정말아요 그대	이적
4	또 하루 (Ft. 개코)	개리
5	소녀	오혁
6	어렸을까	김나영
7	OOH-AHH하게	TWICE
8	잊어버리지마 (Ft. 태연)	Crush
9	함께	노을
10	유레카 (Ft. Zion, T)	지코

편집 | 고창원 기자 ico@donga.com

YG, 강동원 전담팀 어떻게 꾸렸나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외부 영입
양현석 대표 직접 관리...해의 진출 지원

최근 톱스타 강동원(사진)이 YG엔터테인먼트에서 새 출발하기로 선언한 가운데 그를 위해 별도로 꾸려진 '강동원 전담팀'에 연예계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앞서 YG는 이례적으로 '강동원 전담팀'을 구성해 양현석 대표가 이를 직접 관리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연예계에서도 흔치 않은 일로 톱스타 영입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한 연예관계자에 따르면 YG는 강동원의 안정적인 작품 활동과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의 핵심 인력을 기존 YG 직원이 아닌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마케팅 전문가로 영입했다. 해당 담당자는 연예매니지먼트 경험은 없지만, 평소 강동원과 배우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해오며 의견을 나눴다. 스포츠 브랜드 업계에서는 정평이 난 인물이다. 이 관계자는 "강동원이 데뷔하고 처음으로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 활동을 하는 만큼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그에 맞춰 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강동원이 양현석 대표와 마케팅 전문가의 도움으로 연기 활동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목표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영역을 벗어나 어떤 행보를 걸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영화계가 주목하는 '연기자' 도경수

영화 '순정' 시사회부터 매진 행렬
국산 애니 '언더독' 목소리 연기도

도경수(사진)를 향한 영화계의 기대가 특별하다. 인기 아이돌그룹 엑소의 멤버라는 타이틀이 만들어낸 호기심이 아니다. 스크린에서 펼쳐내는 전방위 활약상 덕분이다. 극영화부터 애니메이션까지, 로맨스부터 휴먼드라마까지 넘나든다. 조연으로 참여한 영화 '카트'와 SBS '팬텀아 사랑이야' 등 몇 편의 드라마로 증명된 풍부한 표현력이 향후 다양한 장르에서 보여줄 활약에 기대를 더하게 한다. 도경수는 2월24일 개봉하는 영화 '순정'

(감독 이은희·제작 퍼피터필름)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현재 분주하게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틈에 새로운 도전에까지 나섰다. 애니메이션 '언더독'(감독 오성윤·제작 오돌토끼)의 주인공 목소리 연기를 맡고 녹음을 병행하고 있다. 유기견의 모험을 그리는 '언더독'은 한국적인 색채가 짙은 애니메이션. 내년 여름 개봉할 계획이지만 미리 등장인물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이를 토대로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도경수는 이 같은 실험적인 작업 방식에 망설임 없이 출연을 결정했다.

영화계에서는 도경수가 주연한 '순정'이 과연 관객과 어느 정도 소통할지에도 관심을 쏟는다. 1990년대를 배경으로 애뜻한

첫사랑을 그린 영화는 개봉에 앞서 서울과 부산, 광주 등 6개 도시에서 진행한 쇼케이스 시사회에 모든 좌석이 매진되는 등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순정'의 제작 관계자는 "사건 사회의 반응은 도경수가 가진 팬덤의 영향력에서 온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면서도 "그 동안 착실하게 연기 경력을 쌓은 도경수의 새로운 모습을 궁금해 하는 관객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계의 이런 기대를 증명하듯 도경수는 휴먼드라마 장르의 영화 '행'(감독 권수경·제작 초이마켓)의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배우 조정석과 영화에서 형제로 만난다. 이혜리 기자



보인다. 힙합은 국내에서 아이돌 댄스음악과 함께 이미 주류음악으로 인정받고 있다. 많은 힙합 스타들이 탄생했고, 화려한 군무를 앞세운 아이돌 스타들도 힙합을 시도하면서 '힙합 아이돌'이란 생소한 수식어도 생겨났다.

하지만 음반기획자들이 애초 추구하던 음악색깔과 독창성은 도외시한 채 상업적 목적으로 힙합에 손을 대거나, 또 가수의 재능과 취향과 무관하게 힙합을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음악소비자 입장에서 음악선택의 폭이 줄고, 음악산업 측면에서도 새로운 '솔림현상'이 되기 때문이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가요계에 '힙합 쓰나미'

지코·크러쉬 이어 베이식·예지까지
2월까지 힙합 잔치...솔림현상 우려

가요계에 '힙합 쓰나미'가 예보되면서 음악 차트가 아이돌 음악과 힙합의 양극화로 치달을 전망이다. 하지만 '솔림현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아이돌 댄스음악이 국내 음악시장을 점령한 가운데 힙합가수들이 새해 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음원차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코와 크러쉬 등 젊은 힙합가수들이

26일 현재 멜론 등 음원차트 1~2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뒤이어 또 다른 힙합강자들도 줄줄이 신곡을 낼 예정이다. 엠넷 '쇼미더머니4' 우승자 베이식이 26일 SG워너비 김진호를 피쳐링 가수로 기용해 싱글 '그 집 앞'을 냈다. 빤키와 예지가 각각 27일과 28일 새 음반을 발표한다. 예지(사진)와 함께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 2'에 출연했던 헤이즈도 2월 초 싱글을 내놓는다. 모두 차트에서 힘 펴나 쓰는 힙합스타들이어서 이들의 신곡은 무난히 상위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 순위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2~3주간 특별한 변동이 없는 특성을 감안하면, 2월은 힙합 잔치가 될 것으로도